

# 축산진흥대회 축종별로 분리해야

최 승 덕

제11회 축산진흥대회가 지난 10월 18일, 3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렸다.

축산인을 위한 축산인의 대회가 되어야 할 행사가 축산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없이 발전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

축산진흥대회는 가축개량을 촉진하고,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며, 축산인의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실시돼 왔다. 올해로 벌써 11회째를 맞지만 그동안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질적인 발전은 너무나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축산인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양축농가의 호응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축산인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첫째, 축종별로 구분해서 개최해야 한다.

주인이 불분명하므로, 주인의식이 부족하여 행사가 빛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은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발전을 보여 왔다. 60년대와 70년대의 영세적인 부업축산에서 지금은 각 축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업화로 발전되고 있으며, 경영방법도 점차 개선되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각 축종을 종합해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별로 특색있게 개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될 경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믿어진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축산부문의 생산기반이 확립되지 못해서 각 축종별로 자체적인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발전해 있다. 그 예로 돼지의 경우를 보면 자체적인 종돈능력검정소를 설립하여 양돈농가에 우수한 종돈을 선발·공급하고, 교육을 통한 경영개선 및 사양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양돈농가의 많은 호응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실상 우리나라의 종돈개량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와 닭도 경제능력검정소와 개량사업소가 설립되어 자체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어 머지않아 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가축개량의 속도는 가일층 빨라질 것이지만 축종별로 기대하는 효과와 추구하는 방향도 약간씩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노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좀 더 세심하고 실속있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축종별로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둘째, 양축가의 자율적인 손에 의해 열려야

한다.

행정관청에서 주도하는 일은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으며 실속보다는 형식과 의전에 치우쳐 부드러운 면을 잃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전을 하는데도 한계가 따르게 된다. 현재 주관하고 있는 단체는 사실상 양축농가의 자발적인 단체로 믿기 어려울뿐 아니라 진행상 부드럽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각 축종별로 자율적인 생산자 단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행정력도 축산진흥대회 정도는 무난히 치를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 구성된 자율적인 생산자 단체나 모임에서 대회를 주최한다면 호응도는 그 만큼 더 높을 것이며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대회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자신들을 위한 행사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그 행사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며 호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세째,** 심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심사방법은 외형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 (한우의 경우는 정액 검사도 하지만), 이것은 가축개량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축의 실질적인 참피언을 뽑기 위해서는 그 가축의 능력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축의 경제형질을 신장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수익을 증진시켜 축산부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 축종별로 능력검정을 실시하여 능력을 평가한 다음 거기에 위모심사를 참고로 하는 것이 보다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선정되고 있는 가축은 사실상 그 품종의 대표성을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외모

만 잘 생겼다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돼지를 경매하려다 응찰자가 적어 경매하지 못한 원인중에는 이와같이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 의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혹자는 여러곳에서 출품하므로 능력을 검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쉬운 방법이 있다. 각 축종별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검정기관에 출품축을 모두 입식시켜 일정기간, 일정한 환경하에서 그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심사현장에서 비교심사를 하며 각 개체별 심사평을 하여 준다면 심사에 대한 불만도 없을뿐 더러 가축개량의 흐름을 양축가들도 이해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만 개선해 나간다면 앞으로 축산진흥대회는 축산인의 절대적인 호응속에 축산인의 잔치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사실상 순수 양축가의 참석율은 극히 미미했다. 출품축의 축주와 각 관련기관의 공무원, 관련단체의 임직원을 제외하면 축산인의 자발적인 참여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까지 축산인의 외면을 받게 되기까지는 주관기관의 무성의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주관하는 기관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단체의 이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틀리게 게시하는 등 진행상태가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축산인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며 축산인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겸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축산진흥대회가 축산인의 사랑속에 축산인의 잔치로 변모할 날을 기대해 본다.